

SAEROUN QT

2026
08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시편]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리라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길갈의 열두 돌: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메시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하게하신 것은 요단강 중앙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열두 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배고프고 힘들던 광야에서는 그래도 아쉬웠으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약속의 땅에서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그들이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약속의 땅 안에서도 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미래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127:3-5,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란 말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예배자, 성령충만한 다음 세대 청소년, 자녀들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요셉이요, 에스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 놓으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즉 마귀와 마주 설 때 우리는 결코 주눅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렘 31:17,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또한, 길갈의 열두 돌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거룩한 팀워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길갈에 열두 돌을 세우게 하심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한 한 형제들이었기에, 만약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면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길갈의 열두 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열두 지파지만, 실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되든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는 극단적 개인주의를 가르칩니다. 친구들도 모두 경쟁자로 보게 만드니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형제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같이 크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별은 혼자 빛나지 않는다”는 어느 영화 대사처럼,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함께 원원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위의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자기만 성공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는 리더가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뉴젠 아이들의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2026
08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시편]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리라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2026.
08

SAEROUN

QT

주일	월	화	수
26	27	28	29
2	3	4	5
9	10	11	12
새가족 134기 1주차			8/12-15 제주선교
16	17 대체휴일	18	19
23/30	24/31	25	26
	8/24-29 캄보디아 선교		

목	금	토	
30	31	1	
	7/31 - 8/2 학령기팀 YEM 여름수련회		
6	7	8	
	8/7-9 청소년여름수련회		
13	14	15 광복절	
			7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21	22	
	BTS 기도회		
27	28	29	
	금요찬양집회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6.
08

1	토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는 기도	시 69:13-28
2	주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다	막 1:14-20
3	월	인생의 배를 돌이키는 부르심	눅 5:1-11
4	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 69:29-36
5	수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 70:1-5
6	목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이신 주	시 71:1-11
7	금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리라	시 71:12-24
8	토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하리로다	시 72:1-11
9	주일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막 1:21-34
10	월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	마 8:14-17
11	화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	시 72:12-20
12	수	형통한 악인 앞에 선 마음	시 73:1-16
13	목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시 73:17-28
14	금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시 74:1-11
15	토	[광복절]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라	출 13:3-10
16	주일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막 1:36-39
17	월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눅 4:42-44
18	화	언약을 붙드는 밤의 기도	시 74:12-23
19	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 75:1-10
20	목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왕	시 76:1-12
21	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나이다	시 77:1-20
22	토	다음 세대에 전할 이야기	시 78:1-11
23	주일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막 1:40-45
24	월	은혜는 돌아오게 한다	눅 17:11-19
25	화	광야의 은혜, 광야의 불신	시 78:12-33
26	수	금홍로 붙드시는 하나님	시 78:34-55
27	목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시 78:56-72
28	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지시는 하나님	시 79:1-13
29	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시 80:1-19
30	주일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막 2:1-12
31	월	눈물의 자리에서 들으시는 주님	시 6:1-10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는 기도

시 69:13-28

13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
소서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
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
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16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
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아키소서

17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
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19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20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
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
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22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
이 닳이 되게 하소서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
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26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27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소서

28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
지 말게 하소서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다

막 1:14-20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As Jesus walked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 데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preparing their nets.

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Without dela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men and followed him.

인생의 배를 돌이키는 부르심

눅 5:1-11

- 1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the people wer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게 되었다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 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 69:29-36

29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But as for me, afflicted and in pain— may your salvation, God, protect me.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I will praise God's name in song and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

31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This will please the LORD more than an ox, more than a bull with its horns and hooves.

32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The poor will see and be glad— you who seek God, may your hearts live!

33 여호와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The LORD hears the needy and does not despise his captive people.

34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Let heaven and earth praise him, the seas and all that move in them,

35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for God will save Zion and rebuild the cities of Judah. Then people will settle there and possess it;

36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the children of his servants will inherit it, and those who love his name will dwell ther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 70:1-5

[다윗의 시로 기쁨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 1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Hasten, O God, to save me; come quickly, LORD, to help me.

- 2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May those who want to take my life be put to shame and confusion; may all who desire my ruin be turned back in disgrace.

- 3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May those who say to me, "Aha! Aha!" turn back because of their shame.

- 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But may all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may those who long for your saving help always say, "The LORD is great!"

-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But as for me, I am poor and needy; come quickly to me, O God.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LORD, do not dela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이신 주

시 71:1-11

-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In you, LORD, I have taken refuge; let me never be put to shame.

-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In your righteousness, rescue me and deliver me; turn your ear to me and save me.

- 3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Be my rock of refuge, to which I can always go; give the command to save me, for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 4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Deliver me, my God, from the hand of the wicked, from the grasp of those who are evil and cruel.

- 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For you have been my hope, Sovereign LORD, my confidence since my youth.

- 6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From birth I have relied on you; you brought me forth from my mother's womb. I will ever praise you.

- 7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I have become a sign to many; you are my strong refuge.

- 8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My mouth is filled with your praise, declaring your splendor all day long.

- 9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Do not cast me away when I am old; do not forsake me when my strength is gone.

- 10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For my enemies speak against me; those who wait to kill me conspire together.

- 11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They say, "God has forsaken him; pursue him and seize him, for no one will rescue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리라

시 71:12-24

12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
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
이게 하소서

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5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 내가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 하나님이며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 하나님이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
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9 하나님이며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며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20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1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
하소서

22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 나의 허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
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
안을 당함이니이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하리로다

시 72:1-11

[솔로몬의 시]

- 1 하나님이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Endow the king with your justice, O God, the royal son with your righteousness.

-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May he judge your people in righteousness, your afflicted ones with justice.

-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May the mountains bring prosperity to the people, the hills the fruit of righteousness.

-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May he defend the afflicted among the people and save the children of the needy; may he crush the oppressor.

- 5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May he endure as long as the sun, as long as the moon, through all generations.

- 6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May he be like rain falling on a mown field, like showers watering the earth.

- 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In his days may the righteous flourish and prosperity abound till the moon is no more.

- 8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May he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 9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May the desert tribes bow before him and his enemies lick the dust.

- 10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May the kings of Tarshish and of distant shores bring tribute to him. May the kings of Sheba and Seba present him gifts.

- 11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May all kings bow down to him and all nations serve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막 1:21-34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22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Just then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ried out,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Be quiet!" said Jesus sternly. "Come out of him!"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The impure spirit shook the man violently and came out of him with a shriek.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The people were all so amazed that they asked each other, "What is this? A new teaching—and with authority! He even gives orders to impure spirits and they obey him."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News about him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As soon as they left the synagogue, they went with James and John to the home of Simon and Andrew.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Simon's mother-in-law was in bed with a fever, and they immediately told Jesus about her.

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So he went to her,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 people brought to Jesus all the sick and demon-possessed.

33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and Jesus healed many who had various diseases. He also drove out many demons, but he would not let the demons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연약함을 잡어지시는 주님

마 8:14-17

-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When Jesus came into Peter's house, he saw Peter's mother-in-law lying in bed with a fever.

-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He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and she got up and began to wait on him.

- 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When evening came, many who were demon-possessed were brought to him, and he drove out the spirits with a word and healed all the sick.

-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잡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diseas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

시 72:12-20

- 12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For he will deliver the needy who cry out, the afflicted who have no one to help.

- 13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He will take pity on the weak and the needy and save the needy from death.

- 14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He will rescue them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for precious is their blood in his sight.

- 15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Long may he live! May gold from Sheba be given him. May people ever pray for him and bless him all day long.

- 16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May grain abound throughout the land; on the tops of the hills may it sway. May the crops flourish like Lebanon and thrive like the grass of the field.

- 17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May his name endure forever; may it continue as long as the sun. Then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him, and they will call him blessed.

- 18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Praise be to the LORD God, the God of Israel, who alone does marvelous deeds.

- 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Praise be to his glorious name forever; may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Amen and Amen.

- 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This concludes the prayers of David son of Jess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형통한 악인 앞에 선 마음

시 73:1-16

[아삽의 시]

-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 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다
-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 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 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 7 살찔므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 8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 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 10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 12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 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 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 1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 16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시 73:17-28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till I entered the sanctuary of God; then I understood their final destiny.

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Surely you place them on slippery ground; you cast them down to ruin.

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How suddenly are they destroyed, completely swept away by terrors!

20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They are like a dream when one awakes; when you arise, Lord, you will despise them as fantasies.

21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짙었나이다

When my heart was grieved and my spirit embittered,

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I was senseless and ignorant; I was a brute beast before you.

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Yet I am always with you; you hold me by my right hand.

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You guide me with your counsel, and afterward you will take me into glory.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earth has nothing I desire besides you.

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27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Those who are far from you will perish; you destroy all who are unfaithful to you.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시 74:1-11

[아삽의 마스길]

1 하나님이며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O God, why have you rejected us forever? Why does your anger smolder against the sheep of your pasture?

2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Remember the nation you purchased long ago, the people of your inheritance, whom you redeemed— Mount Zion, where you dwelt.

3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Turn your steps toward these everlasting ruins, all this destruction the enemy has brought on the sanctuary.

4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Your foes roared in the place where you met with us; they set up their standards as signs.

5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They behaved like men wielding axes to cut through a thicket of trees.

6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They smashed all the carved paneling with their axes and hatchets.

7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얹었나이다

They burned your sanctuary to the ground; they defiled the dwelling place of your Name.

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They said in their hearts, "We will crush them completely!" They burned every place where God was worshiped in the land.

9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We are given no signs from God; no prophets are left, and none of us knows how long this will be.

10 하나님이며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How long will the enemy mock you, God? Will the foe revile your name forever?

11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Why do you hold back your hand, your right hand? Take it from the folds of your garment and destroy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라

출 13:3-10

- 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Then Moses said to the people, "Commemorate this day, the day you came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because the LORD brought you out of it with a mighty hand. Eat nothing containing yeast.

- 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갔으니

Today, in the month of Aviv, you are leaving.

- 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When the LORD brings you into the land of the Canaanites, Hittites, Amorites, Hivites and Jebusites—the land he swore to your ancestors to give you,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you are to observe this ceremony in this month:

- 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For seven days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and on the seventh day hold a festival to the LORD.

- 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Eat unleavened bread during those seven days; nothing with yeast in it is to be seen among you, nor shall any yeast be seen anywhere within your borders.

- 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On that day tell your son, 'I do this because of what the LORD did for me when I came out of Egypt.'

- 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This observance will be for you like a sign on your hand and a reminder on your forehead that this law of the LORD is to be on your lips. For the LORD brought you out of Egypt with his mighty hand.

- 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You must keep this ordinance at the appointed time year after yea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막 1:36-39

36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to the nearby villages—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driving out demons.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눅 4:42-44

42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At daybreak, Jesus went out to a solitary place. The people were looking for him and when they came to where he was, they tried to keep him from leaving them.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But he said, "I must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o the other towns also, because that is why I was sent."

44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And he kept on preaching in the synagogues of Judea.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언약을 붙드는
밤의 기도

시 74:12-23

-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But God is my King from long ago; he brings salvation on the earth.

-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It was you who split open the sea by your power; you broke the heads of the monster in the waters.

- 14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It was you who crushed the heads of Leviathan and gave it as food to the creatures of the desert.

- 15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It was you who opened up springs and streams; you dried up the ever-flowing rivers.

- 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The day is yours, and yours also the night; you established the sun and moon.

- 17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It was you who set all the boundaries of the earth; you made both summer and winter.

- 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Remember how the enemy has mocked you, LORD, how foolish people have reviled your name.

- 19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Do not hand over the life of your dove to wild beasts; do not forget the lives of your afflicted people forever.

- 20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Have regard for your covenant, because haunts of violence fill the dark places of the land.

- 21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Do not let the oppressed retreat in disgrace; may the poor and needy praise your name.

- 22 하나님이며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Rise up, O God, and defend your cause; remember how fools mock you all day long.

- 23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 나이다

Do not ignore the clamor of your adversaries, the uproar of your enemies, which rises continuall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 75:1-10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 1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 하나이다

We praise you, God, we praise you, for your Name is near; people tell of your wonderful deeds.

- 2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 판하리니

You say, "I choose the appointed time; it is I who judge with equity.

- 3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When the earth and all its people quake, it is I who hold its pillars firm.

- 4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To the arrogant I say, 'Boast no more,' and to the wicked, 'Do not lift up your horns.

- 5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Do not lift your horns against heaven; do not speak so defiantly."

- 6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No one from the east or the west or from the desert can exalt themselves.

- 7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It is God who judges: He brings one down, he exalts another.

- 8 여호와와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In the hand of the LORD is a cup full of foaming wine mixed with spices; he pours it out, and all the wicked of the earth drink it down to its very dregs.

- 9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As for me, I will declare this forever; I will sing praise to the God of Jacob,

- 10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who says, "I will cut off the horns of all the wicked, but the horns of the righteous will be lifted up."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왕

시 76:1-12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 1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God is renowned in Judah; in Israel his name is great.

- 2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His tent is in Salem, his dwelling place in Zion.

- 3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 (셀라)

There he broke the flashing arrows, the shields and the swords, the weapons of war.

- 4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You are radiant with light, more majestic than mountains rich with game.

- 5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The valiant lie plundered, they sleep their last sleep; not one of the warriors can lift his hands.

- 6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At your rebuke, God of Jacob, both horse and chariot lie still.

- 7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It is you alone who are to be feared. Who can stand before you when you are angry?

- 8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From heaven you pronounced judgment, and the land feared and was quiet—

- 9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when you, God, rose up to judge, to save all the afflicted of the land.

- 10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Surely your wrath against mankind brings you praise, and the survivors of your wrath are restrained.

- 11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Make vows to the LORD your God and fulfill them; let all the neighboring lands bring gifts to the One to be feared.

- 12 그가 고관들의 기를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He breaks the spirit of rulers; he is feared by the kings of the eart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나이다

시 77:1-20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 2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 4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 5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 8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 9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 11 곧 여호와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 12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 13 하나님이며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 14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수량하셨나이다 (셀라)
- 16 하나님이며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 17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 18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 19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 20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다음 세대에
전할 이야기

시 78:1-11

[아삽의 마스길]

1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My people, hear my teaching; listen to the words of my mouth.

2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I will open my mouth with a parable; I will utter hidden things, things from of old—

3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things we have heard and known, things our ancestors have told us.

4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We will not hide them from their descendants; we will tell the next generation the praiseworthy deeds of the LORD, his power, and the wonders he has done.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He decreed statutes for Jacob and established the law in Israel, which he commanded our ancestors to teach their children,

6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so the next generation would know them, even the children yet to be born, and they in turn would tell their children.

7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Then they would put their trust in God and would not forget his deeds but would keep his commands.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They would not be like their ancestors— a stubborn and rebellious generation, whose hearts were not loyal to God, whose spirits were not faithful to him.

9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The men of Ephraim, though armed with bows, turned back on the day of battle;

10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they did not keep God's covenant and refused to live by his law.

11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They forgot what he had done, the wonders he had shown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막 1:40-45

40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
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4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Jesus was indignant.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42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leansed.

43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Jesus sent him away at once with a strong warning:

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
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
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러 그들에게 입증하
라 하셨더라

"See that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
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
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로 나아오더라

Instead he went out and began to talk freely, spreading
the news. As a result, Jesus could no longer enter a town
openly but stayed outside in lonely places. Yet the people
still came to him from everywhere.

SAEROUN QT

24

월요일

은혜는 돌아오게 한다

눅 17:11-19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Now on his way to Jerusalem, Jesus traveled along the border between Samaria and Galilee.

-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As he was going into a village, ten men who had leprosy met him. They stood at a distance

-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어 우리를 불쌍히 여 기소서 하거늘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When he saw them, he said,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One of them, when he saw he was healed, came back,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 리아 사람이라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and he was a Samaritan.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 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Jesus asked, "Were not all ten cleansed? Where are the other nine?"

-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Has no one returned to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 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Then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광야의 은혜,
광야의 불신

시 78:12-33

- 12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 13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 14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 15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 16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 17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 18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 19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 20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 22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 23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 24 그들에게 만나를 비 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 25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 26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 27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 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 같이 내리셨도다
- 28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 29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 30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 31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쓰리셨도다
- 32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 33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금홀로 붙드시는 하나님

시 78:34-55

- 34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 35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
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 36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
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38 오직 하나님은 금홀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
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
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지 아니하셨으니
- 39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
을 기억하셨음이라
- 40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
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 41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둑거둑 시험하며 이스라엘
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 42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
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 43 그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 들에
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 44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 45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
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 46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 47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 48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 49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
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 50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
이셨으며
- 51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 52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 53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
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 54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
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 55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시 78:56-72

56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빗나가서

58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59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

60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61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62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63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64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엮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65 그 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67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69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70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지시는 하나님

시 79:1-13

[아삽의 시]

- 1 하나님이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 2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 4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 5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 6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 7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 8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 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 10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 11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 12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 13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시 80:1-19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듯이 맞춘 노래]

- 1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 2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 3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 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 5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 6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 7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 8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 9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 10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 11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 12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 13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 14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 15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 16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 17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 18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 19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막 2:1-12

-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A few days later, when Jesus again entered Capernaum, the people heard that he had come home.

-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They gathered in such large numbers that there was no room left, not even outside the door,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Some men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zed man, carried by four of them.

-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Since they could not get him to Jesus because of the crowd, they made an opening in the roof above Jesus by digging through it and then lowered the mat the man was lying on.

-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zed man, "Son, your sins are forgiven."

-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Now some teachers of the law were sitting there, thinking to themselves,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Why does this fellow talk like that? He’s blaspheming!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
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
느냐
Immediately Jesus knew in his spirit that this was what they
were thinking in their hearts,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
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
이 쉽겠느냐
Which is easier: to say to this paralyzed man,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take your mat and walk’?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
에게 말씀하시되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So he said to the man,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
로 가라 하시니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
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He got up, took his mat and walked out in full view of
them all. This amazed everyone and they praised God,
saying,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눈물의 자리에서 들으시는 주님

시 6:1-10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LORD, do not rebuke me in your anger or discipline me in your wrath.

-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Have mercy on me, LORD, for I am faint; heal me, LORD, for my bones are in agony.

- 3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이까

My soul is in deep anguish. How long, LORD, how long?

-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Turn, LORD, and deliver me; save me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Among the dead no one proclaims your name. Who praises you from the grave?

- 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뒹꾸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I am worn out from my groaning. All night long I flood my bed with weeping and drench my couch with tears.

- 7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
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My eyes grow weak with sorrow; they fail because of all my foes.

- 8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Away from me, all you who do evil, for the LORD has heard my weeping.

-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The LORD has heard my cry for mercy; the LORD accepts my prayer.

- 10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뺨이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All my enemies will be overwhelmed with shame and anguish; they will turn back and suddenly be put to sha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개인기도제목 - 1주차

[illegible][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3주차

[illegible][illegible]

2026.
08

입교 및 세례자 간증

01

1. 백지수A 학생 (뉴젠 YEM)
2. 정가은A 청년 (Jr.청년공동체)
3. 김예원J 성도(박태윤) (강북공동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백지수A 학생 (뉴젠 YEM)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에 일평생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졌던 건 코로나-19가 한창인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꾸준히 다녔지만 주님과 진실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닌,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여 세상 것들을 주님 위의 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자가격리 때문에 홀로 기숙사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어 허전한 마음에 새로운 교회 뉴젠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교 말씀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접촉성 피부염으로 2024년 한 해를 고통스러워 했을 때, 또 원하는 성적이거나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도, 이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접촉성 피부염은 제가 매일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건강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선물인지를 똑똑히 알려 주었고, 제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원하던 성적이 나오지 않아 낙담 했을 때, 주님께 울며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

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어 성적 채점 오류라는 예상 외의 결과를 주셔서 제게 주님의 건재함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비합격과 같은 희망고문을 없애시고 제 길이 아닌 길들이나 대학들로의 문들을 모두 다 확실하게 닫아주세요. 고민 같은 거 없게!’라는 수험생 시절의 제 기도에 주님께서 의예과가 아닌 모든 학교들로부터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주시고, 의예과로 지원한 학교들은 모두 합격시켜 주시어 제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때때로 그 기도가 내가 뜻한 대로 응답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빛나시고 기쁨 받으시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 개인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긍정적인 자세와 믿음으로 삶을 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로운교회에 와서 여러 형제자매 분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내게 지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불확실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따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저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음에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이름 “물가 지” “나무 수” (즉, 시편에 등장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 오직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정가는A 청년 (Jr.청년공동체)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삶에서는 주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것은 작년 첫 유학 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때에 저는 한국에서는 성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험을 볼수록 그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부정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두려운 마음에 엄마에게 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였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믿음이 없음을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저는 여전히 과목을 패스할 수 없는 성적이었기에 몇 점을 받아야 패스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99점도 아닌 오직 100점을 받아야만 수업을 패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8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니 믿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마음먹고 밤을 새워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필기

노트를 열어 혹시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해야 하는 한 부분을 적지 않고 시험지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런 부분을 절대로 넘어가시는 교수님이 아니셨기에 ‘100점은 절대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주일, 예배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라는 찬양을 마음 대해 고백한 후, 시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점수에는 100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점수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 주신 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100점 덕분에 저는 그 과목을 패스할 수 있었고, 졸업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나 과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모든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읽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

김예원J 성도(박태윤) (강북공동체)



태운이의 태명은 베델입니다. 2024년, 둘째 아이의 임신준비를 하던 때, 한홍목사님의 “기적의 땅 시리즈” 중 “벧엘”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

했던 것처럼, 첫째를 키우며 육아를 핑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둘째 아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은 그 주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태명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임신 중, 남편이 회사 MBA과전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5일 전, 정밀 초음파에서 태운이의 선천성 심장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가는 지역의 대학병원이 미국 최고 수준의 소아심장센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운이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운이는 미국에서 예정일에 건강하게 태어나 예정대로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부모로서 작은 몸에 수많은 관과 기계를 달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타지에서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기도의 손길을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입원 끝에 태운이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퇴원한 지 열흘 만

에 태운이는 수술 부위가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어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운이는 감염 부위를 열어내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오가며 아이 곁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간은 제 신앙의 가장 깊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였던 우리 가족의 회복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도, 현지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기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일 집으로 찾아와 태운이를 돌보아주시던 교회 집사님도 계셨고, 반찬을 나누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신 많은 사랑 속에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던 남편이 이 시간을 지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도 참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항상 모범적이지만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신앙의 가장 바닥을 찍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를 통해 저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태운이는 우리 가족의 베델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운이를 통해 저를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주시고, 남편에게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태운이는 여느 아이와 같이 건강한 심장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몽골 아웃리치 간증

02

1. 최용준 집사(W서초공동체)
2. 박성자B 집사(C강남공동체)

몽골에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

최용준 집사(W서초공동체)



지난 4월,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모를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오직 무릎

로만 이 길을 가리라 결단했습니다.

이번 CES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귀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르항에서 무려 600km 떨어진 먼 땅에서 달려오신 한 목사님은 과거의 깊은 죄악 속에서 살던 옛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시대의 스테반과 같은 목회자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건 금식을 마다하지 않는 목사님의 깊은 눈빛은 제 영혼에 거대한 울림을 던졌습니다.

또 한 분의 멘티는 75세의 고령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외지 목회의 한계 속에서 깊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셨던 목사님은 피곤함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10대 소년의 눈처럼 맑게 반짝이며 멘토링에 몰입하셨습니다. 그 열정을 마주한 순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먼 땅까지 보내셨는지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외부 사역 현장에서 더욱 뜨겁게 타 올랐습니다. 초원 위를 묵묵히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던 현지 사역자분과 85세 노령의 여성도님의 발걸음을 함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 모르는 전도의 여정이었지만, 그 걸음은 파스하게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

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길이었습니

다. 또한, YM 다르항에서 운영하는 2~6세 영유아 탁아소에서의 시간은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목도한 자리였습니다. 가난과 깨어진 가정의 아픔을 겪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워킹맘들을 위한 그곳은, 비록 외형은 허름하고 낙후된 시설이었을지언정 매우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며 정성으로 운영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며,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 파스한 안식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저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중압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저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채워주시려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멘티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였고, 부족한 저를 그 위대한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듯 몽골의 영혼들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던 동역자들의 연합이 있었기에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기도로 허리를 동였던 우리 선교팀의 팀워크는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제 가슴에 새겨진 몽골의 동역자들을 향한 중보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거룩한 언약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순종의 걸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박성자B 집사(C강남공동체)



저는 2024년 LTS 훈련을 받게 되면서 몽골 선교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몽골이라는 나라에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매년 몽골 선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26년 첫 몽골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사님 한 분과 3명의 멘티님이 한 조가 된 이번 선교는, 2박 3일 동안 CES 기독교 핵심 기초 교리를 전하였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하루에 10시간이라는 수업을 나가는 날에도 참여하신 분들은 지칠 줄 모르셨고, 필기를 하도 많이 해서 빨간 색깔 볼펜이 다 달았다고 하시며 볼펜을 보여 주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CES 과정을 통해 기독교 핵심 교리가 정리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11과 사명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사는 마을 곳곳에 우상들을 보면서 화만 내었는데, 이제는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자신이 더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가는 사명자로 쓰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잡플라트 마을에 성경 보급과 전도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역이라 정말 많이 두렵고 떨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만나고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집을 방문해 만난 바이샤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였고 또 다섯째 여동생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무거운 삶의 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저희를 대면할 때는 얼굴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지만, 우리의 간증들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들으며 얼굴에 미소를 띠기도 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에 만난 82세 샤룻 할머니는 멋쟁이셨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굉장히 진지한 눈빛으로 들으시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양쪽 볼에 뽀뽀를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이 고이셨고, 마당 끝까지 따라 나오신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사람이 참 반가운 듯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전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준비 모임부터 시작해 몽골 선교 내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으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 주시고 또 저의 작고 작은 순종을 통해 산 증인 삼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6.
08

금요 커피브레이크 간증

03

1. 고수정B 성도 (E서초공동체)
2. 권수진 성도 (C강남공동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고수정B 성도 (E서초공동체)



저희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인 저는 20대 초반, 가장 친한 친구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읽기는 제게 늘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흐름이나 맥락을 알지 못한 채 읽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성경속으로>를 통해 66권 각 권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며 느껴지는 답답함과 깊이 있는 묵상에 대한 갈급함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작하게 된 <커피 브레이크>는 어느덧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요일 낮에 운영되던 오프라인 커피브레이크가 시간이 안되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화요 저녁 온라인 커피브레이크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순방학 시작과 더불어 화요 커피브레이크를 신청해놓고 있던 중 금요 커피브레이크 개설 소식을 듣고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요일은 사도행전, 금요일은 마가복음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순방학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도자님과 자매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선하신 주님께서는 제가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커피브레이크 모임 내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유겠지요. 어디서든 듣지 못한 귀하고 생생한 간증들을 눈물과 기쁨으로 나누는 모든 순간들 덕분에, 커피브레이크는 단순한 성경 공부 이상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커피브레이크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모임 시간, 그리고 이후 조 단톡방에서의 나눔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먼저 그 주 해당 본문을 개역개정과 NIV성경으로 읽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은 쉬운성경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각 구절에 달린 관주를 모두 찾아가며 이해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 후에 교재의 질문들에 답을 하나하나 적어보았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담겨있는 구절을 그대로 적어야 하는 질문들도 있었지만, 제 삶에 적용해보아야 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질문에 답을 달 때면 마치 주님이 제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 마음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요즘 새벽 예배가 마가복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와 깊이 묵상한 뒤에 듣는 말씀은 천지차이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시대적 배경과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때면, 소름이 돋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며 그야말로 입체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매님 한 분 한 분에게 각기 다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세심함이었습니다. 같은 구절을 읽어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나눔으로 충만해진 은혜는 단톡방을 통한 복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과와 관련된 말씀 영상, 각자 삶에서 은혜받은 말씀, 그리고 찬양을 공유하며 그 감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막 9:50)” 말씀처럼 예수님의 DNA, 가르침 그 자체인 소금을 마음 속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따르고 싶습니다

권수진 성도 (C강남공동체)



순예배를 마치며, 한순원 분이 금요 커피브레이크(이하 컵브)를 신청했다고 해서 ‘나도 이번엔 온라인 대신에 오프라인 컵브에 참여해 볼까’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온라인 컵브를 주로 참여했는데, 이번엔 금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자매님들과 만나 함께 마가복음을 나누다 보니, 짧은 다섯 번의 만남으로도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된 듯 편안한 나눔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컵브 기간에 저희 교회가 한국교총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전하게 되면서 저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난주 교회에서의 금요 컵브 후, 본당의 의사 정렬을 맞추러 안내팀이 모여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오와 열을 맞추는 작업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컵브부터 토요일 입당예배와 주일예배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로 거의 매일 같이 교회에 오다 보니 이제는 교회가 집처럼 편하고 자꾸만 더욱 가고 싶어 집니다. 방금 컵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녁 먹고 또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육안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뜨이고 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디메오처럼, 저도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 얘기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더욱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여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즉시로 자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진심과 열심은 있었지만 전심이 없었다면, 저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내가 자기를 만나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참 기뻐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보니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가정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되는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루한 장마 기간에도 예수님 덕분에 다이내믹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생동감 있게 만나는 자리인 컵브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26.
08

제주 아웃리치 간증

04

1. 김진솔B 청년 (Jr. 청년공동체)
2. 변성우 청년 (청년1부공동체)
3. 김보람F 청년 (청년2부공동체)

후회 없는 선택, 제주 선교

김진솔B 청년 (Jr. 청년공동체)



저에게 '선교'란 한눈으로 보기에 힘든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선을 베푸는 이미지 정도로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주선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주 땅이 선교사를 파견해야 할 정도로 척박한 땅인가?'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준비 모임을 진행하며, 제주 땅에 깊이 뿌리 박힌 혼잡주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문화 및 인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지만, 되려 그것이 '제주선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접 마주한 제주 땅은 찬란한 아름다움과 함께 완전한 불신앙이 혼재한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서 농사 활동을 한 날,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수고로움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함께 고생한 서로를 토닥이고, 아름다운 햇살과 자연 속에서 주님을 위해 노력하는 지체를 바라봄이 감히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 제주도가 왜 선교가 필요한 곳인지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전도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장 상인 분들이 얼마만큼 복음에 대한 문이 닫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요하게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야만 이야기라도 겨우 들어주셨는지 들었을 때 '차라리 농사일로 하루 이틀 허리가 빠르

한 것이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뿌려 놓으신 봉사와의 신의 손길이 청년 연합 제주 선교팀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음을 체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생과 어려움보다 감사와 찬송으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가기 일주일 전, 저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고 나름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던 성우 학원을 등록하여 2번 정도 수업을 받았습다. 선교 활동 중 첫날 예배 특순 연극 팀 또한 만들어져 준비를 하였는데, 한 주 회의를 빠졌더니 갑자기 제 역할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속으로는 꽤 많이 당황했지만, 알고 보니 해당 바뀐 해당 역할은 MC였고, 작지만 제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많은 형 누나분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막 걸어가기 시작한 이 길에 응원을 받고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참으로 오묘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청년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저는 청년 연합 제주 선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결과, 새로운 꿈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안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함의 기쁨

변성우 청년 (청년1부공동체)



이번 청년 연합 제주 선교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사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준비되면 꼭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교의 '입문용'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언젠

가 꼭 연출해보고 싶은 미국 선교사님들 바탕의 영화를 위해 선교가 무엇인지 미리 느껴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곳이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신앙의 깊이나 믿음이 크기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제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자 부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제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선교지에 폐만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선교 첫날, 제주강변교회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송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분들을 만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한 마음만 넘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도님들과 에코랜드로 야유회를 떠나 섬기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조장을 맡게 되었을 때, 어르신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없던 제 안에는 또다시 두려

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자매님들이 마치 말을 맞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손녀처럼 다정하게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든든했고 감사했습니다. '왜 나 혼자 겁먹고 걱정했을까' 반성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제가 가장 자신 없었던 시장 전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전날 밤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가 민망할 정도로, 환상의 팀워크로 시장 사장님들께 다가갔습니다.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웃으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선교는 나 혼자의 능력으로 해내는 거창한 숙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약한 부분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곁에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제주 선교를 통해 제가 배운 선교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넘어갈 수 있는 높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한 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동역자들의 섬김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신비로운 은혜의 현상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느낀 이 함께함의 기쁨을 기억하며, 이제 제 삶의 터전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365일 전도하는 교회, 준비된 청년들의 선교

김보람F 청년 (청년2부공동체)



올해 가고 싶었던 해외선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무산 되면서, 올해는 선교를 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

다. 그때 청년연합 제 주선교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첫 선교였고 국내선교도 처음이었기에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새로운 청년들을 만날 기대도 컸습니다.

처음 준비 모임에서 만난 전도팀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팀원들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전도 팔찌를 만들며 선교를 향한 마음을 품었고, 다음 준비 모임에서는 복음팔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며 제주선교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팔찌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할 때에는 아무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과연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저 또한 팀원들을 믿으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주선교가 시작되어 제주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귀포강변교회에서 드린 첫 저녁집회는 하나님께서 제주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올레시장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떼지 못하던 팀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믿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며 팀원들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충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드려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주니어 청년 때부터 복음의 삶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세워 주신 공동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제주선교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복음의 열정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다시 심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메모

2026 NEWGEN SUMMER UBS

뉴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학령기 연합 (아동·유년·초등부)

7/31(금)-8/2(주일) | 본당, 영관 10층, 새로운홀
31(금), 8/1(토) 오전 9시 30분-오후 8시 30분(무박)

YEM (중·고등 EM)

7/31(금)-8/2(주일) | 여호수아홀
31(금) 오후 1시-8/2(주일) 오후 2시 30분

청소년 (중·고등부)

8/7(금)-9(주일) | 여호수아홀, 새로운홀
7(금) 낮 12시 30분-8(토) 오후 9시 30분

문의: 이성훈 목사, 카톡 ID: saeroun0906

Wednesday Prayer Worship

8월 수요기도예배 기도

8/5 이사무엘 목사

8/12 조은영 목사

8/19 이성훈 목사

8/26 김선일 목사
(인천 영천교회)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장소 새로운홀(패션관 10층)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66 가든파이버 라이프 영관 10층 새로운교회 본당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